



아스팔트 식히는 물줄기 광주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14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중앙차선에 설치된 '클린로드'에서 뿜어져 나온 물줄기가 도심 아스팔트의 열기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대로면 2학기 전면 등교 어렵다

복지시설·중학교서 확진 잇따라...학부모들 '탄력적 등교' 목소리도 일선 학교 "방학동안 유행 찾아들어야 가능...다양한 변수 대비해야"

교육부가 여름방학 이후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천명했지만 최근 들어 광주지역 아동복지시설과 중학교를 중심으로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면서 실현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장기간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성적 격차와 현장 교육 부재, 맞벌이 부부 등의 애로 사항을 감안해 전면 등교 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비롯한 교육청 단위의 다양한 전면 수업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육부가 "감염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전면 등교 확대 추진이 불투명해진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코로

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한 탄력적 등교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도 전면 등교 결정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A아동복지시설 지난 13일 7명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3개 아동양육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등 800여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11일 광주 서구 P중, 12일 북구 S초, 13일 동구 W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이어 14일에는 서구 H중에서 부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학생 감염자가 나와 같은 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만 코로나 감염자가 1000

명 돌파하면서 감염이 지방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피서철을 맞아 수도권 감염자로 인한 피서지로의 전파마저 우려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이번 주말 여름 방학을 기점으로 자녀들과 피서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칫 2학기 개학 전에 대확산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오는 8월초까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만큼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교육부가 8월 초에는 등교 관련 지침을 발표해줘야 학교들도 등교 여부를 결정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광주 모중학교의 교사는 "방학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유행이 찾아들어야 2학기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델타 변이 등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야 하고, 단계별 등교 방식을 사전에 정해두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여름방학 한양도성·명화 탐험하자"

광주 남구 푸른길도서관·문화정보도서관, 초등생 모집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한양도성 탐험과 명화 대탐험에 나설 초등학생을 모집합니다"

광주시 남구 푸른길도서관과 문화정보도서관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독서교실인 '한양도성 탐험대'와 '도서관에서 명화 대탐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각각 모집한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푸른길도서관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10일

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한양도성 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은 관련 서적 4권을 읽은 뒤 한양도성 안과 밖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 성벽 만들기를 비롯해 암사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드는 등 체험할

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문화정보도서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ZOOM을 이용, 비대면 프로그램인 '도서관에서 명화 대탐험'을 선보인다.

초등학교 3~4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처음 그림을 그린 아이'를 비롯해 '나의 프리다' 등 관련 서적 5권이 교재로 활용되며, 도전 명화 게임을 비롯해 나만의 미술관 만들기, 동시 작성 등 참여형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참가자 접수 및 모집 인원은 오는 19일부터 선착순 12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방세 과세 시스템 변경에 "5년치 '과세 폭탄' 맞았다"

세대주 분리 조희로 장애인용 자동차세 감면 사라져

지방세 과세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5년치 과세 폭탄을 맞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14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올 4월 지방세 운영지원단이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 자동차세 관련 부과 자료조회 부분에 관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시켰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과 관련, 장애인과 가족이 분리된 세대에도 동일 주소지에 등록이 된 경우 기존에는 과세시스템에서 걸리지 않던 것이, 올 4월 시스템이 변경돼 과세 대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세대가 분리등록이 돼 있어도 한 주소지에 함께 있다면, 장애인 코드 번호가 주소지 중심으로 인식해 자동차세를 감면 처리했다.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장애인 이동을 위해 차량을 사용한 점을 감안,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이 시스템변경으로 수년치의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광주 동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 A씨 가족은 한꺼번에 120만원이 넘는 자동차세를 내야 할 형편이 됐다. A씨 가족은 6개월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5년치를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과중한 것 같며 광주시에 이의를 신청했다.

A씨 가족은 "내가 죽고나면 홀로 남은 장애인 아들이 걱정돼 행복주택이라도 응모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했지만, 세금이 나온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아예 세대를 분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부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부과라는 점에서 과세사유 발생을 알리고 6개월지만 부과하는 게 적절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A씨 가족의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세법상 제량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 가족이 신청한 지방세 심의 위원회는 16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늘려달라"

광주 북구, 간담회 열어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14일 북구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 전통시장, 상가변영회 등 소상공인 단체·협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4차 확산 대비 소상공인 단체·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경영안정 자금 지원 확대, 방역물품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이 나왔다.

이에 북구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방역물품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시장과 상점가의 현안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북구는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상공인 지원 관련 내용과 구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및 민생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설명했다.

북구는 향후 정부 2차 추경 관련 분야별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금지, 영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코로나블루 달랜 일신중 '일신 마켓'

칭찬 쿠폰으로 간식 구입

광주 지역의 한 중학교가 코로나19라는 우울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장터를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일신중(교장 염옥의) 학생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바른 일신인 운동의 일환으로 '일신 마켓'을 운영했다.

학생들이 칭찬 쿠폰인 일신 달러를 모아 '일신 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기획했다.

학생회는 '일신 마켓' 운영을 위해 지난 달 일신 달러를 제작해 교사들에게 건넸다. 교사들은 칭찬 받을 만한 행동 또는 모범을

보인 학생들에게 일신 달러를 나눠줬다. 학생들은 '일신 마켓'을 방문해 보유한 일신 달러만큼 원하는 간식을 구입했다.

일신중은 오는 19일 여름 방학식에서 일신 달러 보유 순으로 시상식도 가질 계획이다.

학생회장 문지원 양은 "행복한 학교 문화 창출을 위해 학생회 주관으로 지난 4~5월 바른 교육 인기 캠페인과 학급 사진찍기, 학교 힐링 공간 조성, 점심시간 탁구채 대회를 포함한 여러 활동을 했다"며 "추후 '일신 쇼타임', 'E-스포츠타일', 2학기 '일신 마켓'을 운영해 서로 존중하고 행복한 일신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쿠쿠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자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